

유치원 영어교육에 관한 연구

마 송 희

<유아교육 · 부교수>
shma@kbtus.ac.kr

I. 연구의 필요성

현재 지구상에는 약 3,000개의 언어가 사용되어지고 있으나, 정보 통신이 발달하고 국제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사용 언어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영어의 점유율은 점점 더 커져서 현재 영어를 모국어나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는 나라는 75개국에 달하며, 세계인구의 1/4인 15억 명이 의사소통이 가능한 수준까지 영어를 사용할 수 있다(최홍규, 2000)고 한다. 정보교류의 핵이라고 할 수 있는 인터넷에서 사용되는 언어의 80%가 영어로 되어 있으며, 책, 신문, 잡지 등 인쇄물의 약 70%가 영어로 되어 있다. 영어는 세계어로서의 위치를 확실히 하고 있으며, 날로 그 활용범위가 넓어질 전망이다. 과거에는 영어가 국제교류에 종사하는 직업만을 가진 사람에게만 필요했으나, 21세기에는 대부분의 직종에서 필요로 하는 언어가 되어 영어교육에 대한 요구는 과거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는 우리나라 학부모들의 과열된 교육열과 어우러

져서 가히 ‘대한민국은 영어교육 전쟁중’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가 되었다. 대학입시를 위한 사교육에서 영어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초등학생들뿐만 아니라 유아들도 영어에 관한 사교육을 받고 있다. 1990년대 후반에 대전시내 한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아동의 90% 이상이 영어에 관한 사교육을 받고 있었다. 1990년대 초에 이루어진 연구에 의하면, 조사대상 유아의 약 35%가 사설외국어학원에 다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우남희, 이종희, 1994), 약 10년이 지난 지금에는 이 수치가 현저하게 증가되었으리라고 생각된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조기영어교육 즉, 초등학교생이나 유아를 대상으로 한 영어교육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팽팽히 맞섰으나, 최근에는 초등학교생들을 대상으로 한 영어교육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는 거의 없어졌다. 그러나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는 학자들이 있다. 그러나 사회적 요구와 학부모의 요구가 점점 강해지면서 조기영어교육의 찬반론보다는 조기영어교육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및 효율적인 조기영어교수법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다. 공교육에서 영어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학부모들은 영어교육을 시키기 위해 사교육에 의존하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학교에서 영어교육을 시키기에 이르렀다.

1981년에 초등학교 4학년부터 특활시간에 영어수업을 허용하였으며 이어서 교육방송에서는 1984년부터 라디오로, 1985년부터는 텔레비전으로 초등학교 특활영어를 제작 방송하였다. 1995년부터는 3학년 이상의 학생에게 학교 재량시간에 영어를 주당 1시간씩 가르칠 수 있도록 하였으며, 1997년부터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를 정규과목으로서 주 2시간의 교육시간을 개설하게 되었다.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영어교육도 80년도 이후부터 광범위하게 확대되었다. 1982년에 서울 시내 320개 유치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34.8%의 유치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었으며(전동열, 1983), 1990년

대 후반에는 과반수 이상의 유치원으로 확대되었다(김은아, 1996; 남윤주, 1997; 한유미, 이진화, 1997). 전국의 사립 유치원 중에서 850개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김진영, 김현희, 김영실(2000)에 의하면, 67%의 유치원에서 영어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다. 본 연구자가 97년에 광주시에 있는 38개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27개 기관(71%)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었으며, 영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27개 중 21개 기관은 영어교육을 시작한지 3년 이하라고 응답하였다. 전체 조사대상 38개 중에서 21개 기관이 최근 3년 이내에 영어교육을 시작하였다는 것은 영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유아교육기관의 수가 95년 이후에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우리나라 유치원에서 이루어지는 영어교육은 사설 출판사가 출간한 교재를 사용하여 그들이 교재와 함께 보낸 교사가 하루에 약 10-20분 정도 영어교육을 실시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었다(김진영 외, 2000).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종합하면 2000년 현재 2/3이상의 유치원에서 영어교육을 실시하고 있었으나 교육내용면에 있어서는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교재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유아교육전공자가 주도적으로 참여하지 않아서 유아의 발달적 특성이 고려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유치원 교육과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교육을 실시하는 교사가 유아교육을 전공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90년대 들어서면서부터는 원어민 교사가 수업을 영어로 하는 기관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기관은 영어유치원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으나, 교육부에서 인가를 받은 유치원이 아닌 사설 학원으로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유치원으로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유아들을 위한 실내·외 환경을 갖추고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유치원 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을 교사로 채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들이 채용하고 있는 교사는 유아교육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며, 이직율이 상당히 높아서 안정적인 교육을 기대하기 어렵다. 4년제 혹은 2년제 대학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유아에 대한 사랑, 성실성, 도덕성과 신

체·정신적 건강, 건전한 인생관 등의 개인적 자질과 유치원 교육과정과 교수방법, 그리고 유아에 대한 지식을 포함하는 전문적 자질을 갖추도록 훈련을 받는다. 교육학이나 유아교육관련 분야의 훈련이라도 받은 사람들은 비슷한 과정을 거치게 되나 전혀 다른 분야의 전공을 한 사람들에게 유아들을 맡긴다는 것은 전인적으로 교육을 시키는데 문제가 많다고 생각된다. 더구나 이러한 기관의 수업료는 우리나라 사립대학 수업료와 비슷하거나 더 비싼 경우가 대부분이다. 본 연구는 (1) 유아 영어교육의 이론적 근거와 (2) 유아들에게 적합한 영어 교수방법을 살펴 보며, (3) 유치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활동의 예를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 유치원 영어교육의 올바른 방향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I. 유아영어교육의 이론적 근거

유아영어교육의 이론적 근거를 살펴보기 전에 유아영어교육과 관련된 몇 가지 용어를 정의해 볼 필요가 있다.

1. 용어의 정의

1) 조기영어교육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유아들과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교육을 의미한다. 유아영어교육이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의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교육을 의미한다.

2) 이중언어(bilingualism)

김현희(1988)는 제2언어로도 의미있는 발화를 할 수 있으며 그 발화는 의미론적, 구문론(통사론)적, 어휘, 음운론적인 요소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제2언어의 습득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도 하며, 학교나 기관을 통해서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상태에서 이루어지기도 한다.

3) 제2언어와 외국어로서의 영어

제2언어로서의 영어(English as a Second Language: ESL)와 외국어로서의 영어(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EFL)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 제2언어로서의 영어는 미국이나 영국과 같이 영어를 사용하는 환경에서 영어를 배우는 경우이며, 외국어로서의 영어는 우리나라에서처럼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환경에서 영어를 배우는 것을 의미한다. ESL과 EFL은 외국어 학습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나, 언어입력의 양, 학습자의 외국어 사용에 대한 동기, 교사변인이 서로 다르게 작용하므로 ESL의 연구결과를 그대로 EFL에 적용할 수 없다.

4) 외국어 습득(acquisition)과 학습(learning)

Krashen(1978)은 습득이란 모국어를 배우는 환경에서처럼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언어규칙에 대한 별다른 생각없이 잠재 의식적으로 언어를 배우는 것이며, 학습은 언어규칙에 대한 의식적인 설명과 훈련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라고 구별하였다.

2. 유아기에 영어교육을 시작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영·유아가 모국어를 배우게 되는 과정을 보면, 성인이 유아에게 사물을 보여주면서 명명해주는 식으로 직접 가르쳐주기도 하나, 어느 시기가 되면 가르쳐주지 않은 어휘나 문장도 이해하고 말을 하는 등 유아의 언어가 급격히 발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Chomsky는 인간의 뇌 속에 언어습득장치(LAD)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였으며, 유아의 이러한 언어능력은 생득적인 것이라고 하였다. 언어습득장치가 작동이 되려면 풍부한 언어적 환경을 제공하여야 하며 유아와 사회적으로 상호작용을 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데, 대개 유아가 모국어를 배울 때에는 이러한 조건이 충족된다.

외국어를 배울 때에도 모국어를 배울 때처럼 LAD가 작동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ELS 환경에서는 대체로 긍정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부모와 함께 미국으로 이민간 세 살밖에 안되는 한국 유아가

1년 후엔 한국교포 가정에 없어서는 안될 통역이 된다. 이 아이의 부모는 중·고등학교에서 6년 동안 대학교에서 영문학을 전공하면서 4년 동안 대학을 졸업한 후에도 수년동안 열심히 영어를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네 살 난 자녀보다 더 영어를 못한다. 이것은 언어를 습득하는 특별한 능력인 LAD가 외국어를 학습하는 데에도 작동을 하며 유아기에는 활발히 활동을 하나 성인이 되면 더 이상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라고 하겠다. 이러한 예들은 언어습득장치의 가설과 이의 생물학적 기초를 제공하는 결정적 시기이론이 모국어 습득에만 적용되지 않고, 제2언어 학습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보는 학자들의 의견을 지지해 준다고 할 수 있다(이정민, 2000). Lado(1976).

Soderbergh(1977) 등의 언어학자들에 의하면, 언어습득장치는 1세 반에서 6세 사이, 즉 유아기에 가장 왕성하게 작용하고 12-13세 경에 사라져 버린다고 한다. 그러므로 LAD를 활용하여 외국어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유아기가 가장 적합하며, 12-13세 후에는 LAD를 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는 것이다.

학자들은 외국어를 주로 혹은 자주 사용되는 환경에서 영어를 배우는 ELS 환경에서는 LAD를 활용하는 학습이 가능하나, EFL 환경에서 외국어를 배울 때에 LAD를 활용하는 것이 어렵다고 평가한다. ELS 환경에서는 다양하고 풍부한 언어입력이 제공되며 외국어로 말하고자 하는 동기가 극대화되어서 영어학습에 효과적이거나, EFL 환경에서는 영어로 언어입력을 제공하거나 사회적 상호작용을 해 줄 사람이 거의 없고 영어로 말하고자 하는 동기수준이 낮아서 LAD를 활용하는 습득과는 질적으로 다르다고 한다. 그러나, EFL 환경에서도 외국어학습에 LAD를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사례도 많이 있다. 영어를 사용하는 나라에는 3개월간 여행을 한 경험밖에 없으며(그것도 대부분의 시간은 한국어를 사용하는 부모와 함께 있었음) 영어로 된 비디오 테이프를 즐겨들으며 유치원에서 주 1-2시간 정도 영어를 배우는 4세된 유아의 경우를 소개해 본다. 그 아이는 부모가 어떤 약 설명서에 나와있는 “Do

not bandage”라는 문장을 읽어주면서 반창고를 부치지 말라는 뜻이라고 설명을 해주었더니 후에 종이를 자르지 말라는 뜻으로 “Do not paper”라는 말을 하였다. 물론 paper를 동사처럼 사용한 것은 잘못이나 ‘...를 하지 말라’는 뜻으로 “Do not...”의 구문을 알아서 적용한 것이다. 그 아이는 어떤 개념을 우리말로 배우면 “영어로는 뭐라고 해?”라고 물어서 두 언어의 어휘를 배워간다고 한다. 그 아이의 부모는 아이가 묻는 말에는 대답을 해주었으나 체계적인 영어교육은 시키지 않았으며 아이와의 대화는 모두 우리말로 이루어졌다고 한다. 이 경우는 반드시 영어를 사용하는 나라에 있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환경을 조성하여 주면 유아기에 LAD를 활용해서 외국어학습을 시킬 수 있다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아동들이 저항감이나 자아의식 없이 외국어를 배울 수 있을 뿐 아니라 모국어와 비교하거나 외국어를 분석하지 않으므로 외국어로 말하려고 할 때 성인들과 같이 부끄러워하거나 실수하는 것에 대하여 주저하지 않게 된다고 한다. 더구나 아동은 자기나라의 말뿐 아니라 여러 다른 형태로 표현하고 싶어하는 욕망을 가질 뿐만 아니라 말에 창의력을 발휘하려고 노력하는 시기이므로 급속한 언어발달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한다(Oliva, 1969). 사춘기 이후의 청소년이나 성인들은 자의식이나 수치심이 강해 실수를 두려워하며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을 꺼려한다. 강한 자의식은 외국어 언어자체를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이 만들어낸 감시장치를 사용하여 자신의 오류를 통제하므로 언어학습에 방해가 된다. 그러나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는 아동은 적절한 동기만 부여된다면 언어세계에 대한 매력과 경이감을 갖고 언어를 본능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또한 유아기의 특징인 모방과 반복을 좋아하는 점도 유아기에 외국어 학습을 용이하게 하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언어를 습득하는 능력은 사춘기 이후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입력, 학습자의 정의적 요소 등이 갖추어지면 사춘기 이후라도 언어를 배울 수 있는 능력이 어린이와 차이가 없다고 하는 학자들도

있다(안수웅, 1994; Krashen, 1981). 외국어 학습을 시작하는 시기에 관한 그들의 입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가. 언어의 통사구조나 형태론적 요소들은 선행학습이나 인지적 성숙 때문에 어른이 어린이보다 빨리 학습한다.
- 나. 장기적으로는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어릴 때 외국어 습득을 시작한 사람이 어른이 되어 시작한 사람보다 발음 면에서는 탁월하나, 통사구조나 형태론적 요소에 있어서는 불분명하다.
- 다. 한국과 같은 EFL 환경에서 영어 조기교육을 할 경우의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검증된 자료가 많지 않다.
- 라. 일찍 시작하는 데에 대한 특별한 이점보다는 학습시간의 양이 많아서 오는 효과일 가능성도 있다.

대부분의 외국어 학습에 관한 연구들은 ESL 환경에서의 외국어 학습, 혹은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서 두 언어를 사용하는 이중언어습득에 관한 연구들이다. 우리나라에서의 조기 영어교육은 시행된 지 얼마되지 않았고, 교육의 양과 질도 다양하므로 교육효과에 대한 연구가 어려운 실정이다. 영어로 몇 마디 말을 하거나 이해한다고 해서 교육효과를 성급히 판단해서는 안 된다. 유아기가 다른 시기보다 특별히 유리하다고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짧은 시간 동안 노출되더라도 LAD를 활용해서 외국어를 습득한다는 증거가 필요하다.

3. 유아기에 외국어를 학습하는 것이 모국어 습득을 간섭하는가?

조기 영어교육을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는 아직 모국어의 발달도 완전치 않은데 외국어를 가르치면 모국어 습득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제2언어가 모국어의 습득을 방해하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도 일관된 연구결과들을 찾기 어렵다. 제2언어가 모국어 습득을 방해한다는 결과, 제2언어에 노출되어도 모국어 학습에 상관이 없다는 연구, 그리고 제2 혹은 제3언어를 학습하는 것이 오히려

일반적인 언어의 규칙이나 현상에 민감해져서 모국어 습득에 도움을 준다고 하는 연구들도 있다(이정민, 2000). 또한, 2-3개 언어가 아니라 그 이상의 언어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언어학습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Transnational College of LEX, 1998).

그들은 아프리카나 인도처럼 여러 가지 언어를 사용하는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새로운 언어를 더 빨리 배우는데, 이것은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환경에서 자라는 사람들이 새로운 언어에 대하여 본능적으로 신기해하고 자연스럽게 새로운 어휘의 뜻을 알아내고자 하나 한 가지 언어가 주로 사용되는 환경에서 성장한 사람들은 외국어를 그들의 이해력을 넘어서는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그들은 10개 이상의 언어를 동시에 사용하는 Hippo Family Club activity가 탁월한 방법이라고 하였다. 한 두 개의 언어를 학습하면 언어의 피상적인 차이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나, 다중언어환경(multilingual environment)에 노출되면 언어 간의 차이보다는 언어들간의 유사성을 무의식적으로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다.

어떤 학자들은 갓난아이 때부터 두 언어를 접하는 경우 한 가지 언어만 접하는 경우보다 모국어 습득이 약간 늦어지는 현상, 즉 외국어 학습이 모국어 학습을 간섭하는 현상이 있으나 생후 3년이 지나 어느 정도 모국어가 자리 잡아가는 경우에는 다른 언어에 노출되어도 관계없다고들 한다. 또한, 우리말과 영어처럼 두 가지 언어의 발음체계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초기 단계에 많은 혼란이 온다고 하며, 어순과 전치사의 경우는 이중언어 발달에서 상당히 많은 간섭을 받아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초기단계에서의 간섭현상을 인정하나, 두 번째 언어의 학습이 모국어 발달에 방해가 되지 않거나 오히려 도와준다는 주장이 점차로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추세이다. 스페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3-4세 유아들이 미국에서 이중언어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유아원에 다닌 유아와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부모와 함께 집에서 보낸 유아들을 비교한 연구결과를

보면, 이중언어 프로그램에 등록된 유아들이 집에서 부모와 함께 지낸 유아들보다 영어는 훨씬 빠른 속도로 발전하였으며, 스페인어도 집에서 지낸 통제집단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고 한다(Rodriguez et al., 1995). 일란성 쌍생아 중 한 명은 모국어와 외국어를 동시에 가르치고 나머지 한 명은 외국어만 가르친 결과 8세 이후부터는 두 아이의 모국어 성적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최진황, 1995). 미국에 이민간 여러 나라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Fillmore(1991)는 아동들이 영어를 접촉하게 된 시기와 상황에 따라서 가정에서만 사용하는 모국어를 잊어버리게 될 수도 있으나, 이것은 아동이 영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또래집단과도 어울릴 수 없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제한된다고 하였다.

반대로, 외국어 학습이 모국어 학습에 방해가 되지 않고 모국어에 대한 이해력과 유창성을 길러주는데 도움을 준다는 주장도 있다(Hancock, 1977). 이것은 또 다른 언어를 학습함으로써 언어기능을 활성화시키게 되어 모국어 습득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중언어 혹은 다중언어 아동의 언어발달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제2외국어 습득이 인지적인 기술과 언어적인 기술을 촉진시켜준다고 하였다. 그들은 한 가지 언어만 사용하는 아동들에 비해서 이중언어를 사용하는 아동들은 언어적이고 비언어적인 지능, 분석적 추론, 개념 형성, 메타언어적 인식, 그리고 창의성 면에서 뛰어나다고 하였다(Ricciardelli, 1993, Puckett, M.B. & Black, J.K.(2001) 재인용).

Mcgill 대학의 Lambert 교수도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유아를 French-Canadians의 유치원에 입학시켜 그곳의 유아와 함께 프랑스어를 가르치고, 초등학교에서는 프랑스어와 영어를 혼용케 한 이중언어 사용자의 심리를 실험한 바 있다. 그 결과 모국어에 대한 영향은 전혀 없었으며, 지능면에서 추상적인 인식능력의 발달로 2개 언어 사용자의 산수평균성적이 높았고 표현능력이 더 우수하였을 뿐 아니라 외국어에 대한 감수성도 높았으며 다른 민족에 대한 태도도 호의적이며 동정적이었다고 하

였다(정명호,1989). 위의 연구결과들도 이중언어 사용자에게 관한 결과들이며 EFL 환경에서 외국어 학습을 하는 경우에 모국어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므로 EFL 환경에서의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III. 유아들을 위한 외국어 교수방법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외국어 교수방법으로 문법-번역식 교수법(grammar-translation method)을 들 수 있으나, 이 방법의 주요 목적은 외국어로 쓰여진 문헌을 읽기 위한 것이고, 문법의 분석을 통해서 언어에 접근한다. 읽기에 초점을 맞추고, 말하기나 듣기는 체계적으로 지도하지 않는다. ‘언어’보다 ‘언어에 관한 지식’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학습한 사람들은 언어에 대한 지식은 풍부하나, 언어를 말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며, 형식적 조작이 가능한 중학생이상의 연령에게 사용할 수 있다. 유아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 외국어 교수법으로는 직접 교수법, 청화식 교수법, 의사소통중심 접근법, 총체적 언어 접근법, 자연적 접근방법 등이 있다.

1. 직접교수법

직접교수법(direct method)은 학습현장에서 모국어를 전면적으로 배제하고 학습하고자 하는 목표언어만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외국어로 생각하도록 하는 교수법이다. 모국어의 설명이나 번역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실물이나 그림 같은 시청각 교재를 사용한다. 실물로 보여줄 수 없는 추상적인 것은 비교 또는 연상을 통해 제시한다. 수업활동에서 질문과 대답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주로 교사가 질문을 하고 학생이 대답을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된다. 학령이 지난 경우에는 읽기와 쓰기를 말하기 듣기와 병행하여 지도한다.

2. 청화식 교수법

청화식 교수법(audio-lingual approach)은 ‘aural-oral’(청각 구두식)이라고도 불리어지는 방법으로 20세기초 구조주의 언어학과 행동주의 이론의 영향을 받은 언어교수법이다. 듣고 말하는 기능을 먼저 신장하여 그 위에 읽기 쓰기의 기능을 학습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청화식 교수법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 ① 새로운 자료는 대화형태로 제시된다.
- ② 일정한 어귀의 기억, 모방, 연습에 의존한다.
- ③ 구문은 대조분석(contrast analysis)에 의존하고 한 번에 한 가지씩 가르친다.
- ④ 구조적 유형은 반복연습에 의해서 가르친다.
- ⑤ 문법은 연역적 설명보다 귀납적 유추에 의해서 가르친다.
- ⑥ 어휘는 엄격히 제한되어 있으며 문맥 안에서 학습된다.
- ⑦ 테이프, 언어 lab, 시각 보조물을 많이 사용한다.
- ⑧ 발음을 아주 중요시한다.
- ⑨ 교사가 모국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 ⑩ 성공적인 반응은 즉각적으로 강화된다.

3. 의사소통적 교수법

의사소통적 교수법(Communicative Language Teaching: CLT)은 언어지도에서 언어구조의 단순한 습득보다 의사소통능력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교수법이다. 의사소통능력이란 언어 지식과 언어 사용능력, 언어구조의 습득에 더해 이 형태가 언제, 어떻게 그리고 누구에게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아는 것이다.

CLT 교수법의 기본 원리는 실제의 의사전달과정을 포함하는 활동들이 학습을 증진시킨다는 의사소통의 원리(communication principle), 의미있는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언어를 사용하는 활동이 학습을 증진시킨다는 과제원리(task principle), 학습자에게 의미있는 언어가 학습과정을 지지한

다는 유의성 원리(meaningfulness principle)를 들 수 있다. CLT의 활동은 크게 과제 중심의 기능적 의사소통 활동과 역할극, 토론 등의 사회적 상호작용 활동으로 나눈다.

4. 총체적 언어접근법

총체적 언어접근법(whole language approach)은 초등학교의 영어(모국어) 읽기 교수법으로 시작되었으며 후에 외국어 교육에 응용되었다. 총체적 언어접근법을 시작한 Goodman은 언어를 별 개의 부분으로 이루어진 집합체가 아니라 하나의 전체로서 간주한다. 총체적 언어접근법은 언어의 네 가지 기능, 즉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의 상호관계를 강조하며, 의미있고 기능적인 언어와 사회적 상호작용을 중요시하였다. 교수자료는 의미가 통하는 전체 내용이어야지 의미 없는 조각으로 나누어진 교수자료는 지양해야 한다고 하였다. 아동 도서나, 이야기, 주변환경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인쇄물 등이 의미 있는 자료가 된다고 한다.

5. 자연적 접근방법

자연적 접근방법(Natural approach)은 Krashen의 외국어 습득이론과 Terrell의 수업절차가 합쳐서 이루어진 방법으로, 말의 내용(message)을 이해함으로써 언어습득이 일어난다고 본다. 그러므로 이 방법은 입력자료를 많이 제공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 Krashen은 어떤 특정한 언어 이론보다 다양한 학습 상황이나 실례의 연구를 토대로 한 다섯 가지 가설을 중심으로 이론을 전개하였다.

1) 습득-학습 가설(acquisition-learning hypothesis)

언어 습득은 어린이들의 모국어 습득에서 관찰되는 것으로 실제적인 의사소통을 통해서 무의식적으로 언어를 익히는 것이며, 언어 학습은 주로 외국어를 배울 때 일어나는 것으로 언어의 문법지식을 아는 것을 의미한다.

2) 모니터 가설(monitor hypothesis)

Krashen은 습득된 언어체계만이 자연스럽게 유창한 발화를 일으키며 학습된 언어 지식은 나중에 모니터 작용을 하며, 자체 수정으로 이끈다.

3) 자연적 순서 가설(natural order hypothesis)

언어 습득에서, 학습자는 예측 가능한 순서로 문법 구문을 습득하는데, 그 순서는 문법적인 단순성이나 교실에서 가르치는 순서와는 무관하다.

4) 입력 가설(input hypothesis)

입력 가설은 학습자를 언어에 노출시키는 것과 습득과의 관계에 관한 것으로 학습자는 현재 습득한 수준보다 한 단계 위의 언어 입력을 잘 이해하여 습득하게 된다는 것이다. Krashen에 따르면, 상황, 문맥, 언어 이외의 정보, 세상 지식 등을 바탕으로 아직 습득하지 못한 구문을 포함한 입력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이해 가능한 입력(comprehensible input)을 충분히 제공하면 아직 습득하지 못한 한 단계 위의 언어 입력을 습득하게 된다. 또한 유창하게 말하는 능력은 직접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학습자가 입력을 이해하면서 언어 능력을 쌓으면 저절로 나타나는 것으로 설명한다.

5) 정의적 여과 가설(affective filter hypothesis)

언어학습에는 학습자의 동기, 자신감, 불안감 등의 크게 작용하지는 않지만 언어 습득에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여과 장치는 언어 습득에 필요한 이해 가능한 입력을 차단하거나 통과시키는 작용을 함으로 이것이 낮을 때 습득이 잘 이루어진다.

대개의 경우 학습자가 내용에 몰두할 때 정의적 여과 장치가 낮아져서 습득을 차단하지 않는다. 자연적 접근법에서의 언어 습득 활동은 다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1) 청해활동(comprehension(pre-production) activities)

학습자에게 말하기를 요구하지 않으면서 청해력을 키우는데 주력한다. 문맥에 의한 추측, 전신반응교수법, 기술, 제스처, 시각 자료, 개인적

정보 등을 활용해서 이해를 돕는다. 예를 들면, 외모의 묘사를 통해서 해당되는 학생을 찾아내는 활동 등이 있다.

2) 초기 말하기 활동(early speech production)

학습자들이 500단어 정도의 어휘를 인식할 수 있을 때, 한 단어 응답을 요구하는 질문을 하여 말을 하도록 한다.

3) 자연스러운 말하기 활동(speech emergence)

이 단계에서는 게임, 역할극, 인본주의적-정의적 활동, 정보 활동, 문제 해결 활동을 통해서 자연스런 말하기를 격려한다. 교사는 말하기를 격려하기 위하여 학습자의 오류를 수정하지 않는다.

6. 전신반응교수법

자연적 접근법의 초기 단계에서 활용될 수 있는 전신반응교수법(Total Physical Response Method)은 특히 유아들에게 적합한 방법이다. 전신반응교수법은 모국어든 외국어든 유아가 처음부터 말하기를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오랜 동안 침묵기간을 거치면서 주변의 소리를 듣고 이해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낸 다음에 귀에 익숙하고 이해가 된 단어부터 서서히 소리를 내기 시작한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이처럼 유아의 언어 발달 과정에서 침묵기간은 단순한 시간 낭비가 아니라 발화의 소리를 식별하고 이해하는 가운데 듣기 능력을 발달시키는 기간이다.

듣기능력과 말하기 능력을 동시에 발달시키는 것보다 듣기능력만을 집중적으로 발달시킨 다음 말하기 능력을 발달시키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 전신반응교수법의 기본 전제이며 듣기능력을 집중적으로 발달시키기 위해서 전신반응교수법이 개발되었다. 유아가 초기의 청취단계에서 귀로 들은 외국어는 기억하지 않고 즉각적인 인지로 끝내나 이와 같은 인지가 반복됨에 따라 점차 기억에 남게 된다.

인지 단계에서 언어의 구조가 내재화되면 자동적으로 구두반응이 따르게 되는데 그때 비로소 구두연습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한다.

교수기법의 특징을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교사가 학습자에게 간단한 명령문(Open your book, Raise your hands, Point to your nose. 등)을 말할 때 학습자로 하여금 그 행동을 하도록 한다. 교사가 이야기한 문장을 학습자가 이해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그림이나 카드, 실물을 제시하면서 영어로 설명한다.

이처럼 교사의 문장에 행동으로 반응하는 단계가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학습자가 교사나 다른 학습자에게 같은 명령문을 사용하여 지시한다. 전신반응 교수법이 유아들에게 효과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신반응교수법으로 학습을 할 때 유아는 교사의 간단한 명령문에 대해서 즉시 행동으로 반응을 나타내야 하므로 주의력을 집중하게 된다. 둘째, 자신의 반응이 자신의 신체적 행동에 의해서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게 된다. 셋째, 언어를 행동과 연결시키므로 근육운동감각적 기억(kinesthetic-tactic memory)에 의해 장기기억이 이루어진다.

7. 몰입(immersion) 프로그램

세계 주요국가들의 조기 외국어교육은 몰입(immersion) 프로그램이나 이중언어교육(bilingual language learning)으로 되는 것이 최근의 추세이다(신경구, 선규수, 박주경, 1996). 몰입 프로그램이란 외국어가 강의의 대상이라기보다는 강의의 매체가 되는 프로그램을 가리킨다. 즉, 수업 전체를 외국어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말하며, 이중언어 프로그램이란 수업의 50% 정도는 외국어로 진행하고 50% 정도는 모국어로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몰입 프로그램은 처음 캐나다에서 개발되어 60년대 말 불어 교수에 매우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모형으로 미국에서도 주에 따라 초등학교에서 이를 도입하였다. 수업에서의 언어를 외국어로 사용함으로써 유아들에게 외국어로 듣고 말하려는 동기를 극대화시켜 줄 수 있으며 많은 양의 외국어에 노출시켜 줄 수 있으므로 외국어교육의 효과면에서는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다.

III. 유치원 영어교육 활동

유치원 영어교육의 내용은 우리말로 이루어지는 수업에 영어라는 언어를 가르치는 부분을 포함시킬 것인지, 전체 수업을 영어로 할 것인지, 부분적으로 영어 활동을 포함시킬 것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며, 교사의 영어구사능력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 영어로 전체 수업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교육내용은 우리나라 유치원 교육과정에 포함된 모든 내용이 포함된다. 그러나 영어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유아들에게 영어로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언어입력자료 이외에 수업내용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단서가 많이 포함된 내용이라야 유아들의 흥미를 끌고 유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유아들이 모국어를 배울 때에도 모르는 어휘에 접하게 되었을 때는 주변상황이라든지 말하는 사람의 표정과 손짓, 몸짓뿐만 아니라 문맥과 같은 단서에 의존한다. 주변문맥을 이해하면서 한 두 단어를 모르는 경우에는 추론이 비교적 용이하나 주변문맥을 거의 모르면 추론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우리나라에서 외국어로서 영어를 배우는 유아들은 주변 문맥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구체물이나 그림자료, 혹은 비디오 등과 같이 유아들의 흥미를 끌고 유지시킬 수 있는 단서가 될 만한 시각적 자료들을 풍부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유아들에게 교육적 가치가 있는 활동 중에서 영어에 대한 흥미를 끌고 영어를 학습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것 중에서 원어민 교사가 아니라도 지도할 수 있는 활동들을 소개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음률활동

리듬은 우리 몸을 비롯한 많은 것에 존재한다. 심장 박동, 호흡과 같은 생체의 리듬있는 활동은 물론 음악, 율동, 언어 등에도 리듬이 있다. 리듬은 어떤 에너지의 형태를 시간의 단위로 반복하는 것을 말하는데,

음악리듬은 청각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고, 동작리듬은 시각적이며 공간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다. 음악리듬과 동작리듬이 함께 결합될 때 효과적이고 흥겨운 활동이 가능해진다.

외국어 교육을 위해서 음악과 율동을 사용하는 것은 이처럼 흥미 있는 활동을 통해서 즐겁게 학습을 할 수 있다는 점 이외에, 노래 가사와 언어가 갖는 공통적 요소(억양, 강세, 리듬 등) 때문에 노래 가사를 배우면서 언어를 쉽게 배우게 된다.

또한, 노래자체가 단어나 문장구조가 반복된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아동들이 반복해서 부르는 노래의 특성 때문에 아동들이 쉽게 이해하고 기억하게 된다. 특히, 언어와 동작이 결합되면, 언어를 이해하지 못해도 동작을 보고 그 언어의 의미를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언어와 운동이 결합되어 장기적으로 기억될 수 있다. 원어로 녹음된 노래는 쉽게 구할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 교사에 의해서도 활용 가능하다.

<표 1> 음률활동과 유아영어교육

[활동명] 신체부위 탐색하기

* 교육목표

① 영어교육

-신체부위(머리, 어깨, 무릎, 발)의 명칭을 안다.

-신체부위(머리, 어깨, 무릎, 발)를 움직이는 방법을 명명한다.

② 동작교육

-신체부위(머리, 어깨, 무릎, 발)를 움직이는 방법을 이해한다.

-균형, 협응능력을 기른다.

* 사전활동

-“머리, 어깨, 무릎, 발” 노래를 우리말로 노래 부른다.

-머리, 어깨, 무릎, 발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본다.

* 본활동 과정

- ① “Head and shoulder,--” 노래를 부른다.
- ② “Head and shoulder,--”노래를 부르면서 해당되는 부위를 손으로 가리킨다.
- ③ “Head and shoulder,--”노래를 부르면서 해당되는 부위를 움직인다.
- ④ 각 부분을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야기한다(shake, nod, turn, shrug, bend, straighten).
- ⑤ 노래를 부르면서 한 번에 한 부분 이상씩 노래를 하지 않고 동작만 한다. 즉, 교사가 ‘head’하고 소리를 내면 가사에서 ‘head’에 해당되는 부분은 노래를 하지 않고 해당되는 동작만 하고 ‘head and shoulder’ 하면 그 부분에서는 노래를 하지 않고 해당되는 동작만 한다.

* 사후/확장 활동

- ① 게임
 - 머리, 어깨, 무릎, 발 위에 팔주머니를 올려놓고 움직여본다.
 - 팔주머니 없이 움직일 때의 동작과 비교해본다.
 - 두 팀으로 나누어 놓고 반환점을 정해서 팔주머니를 일정한 부위에 올려놓고 돌아오는 게임을 한다.
- ② 신체부위에 관한 다른 노래(hokey pokey)에 맞추어 동작한다.

2. 아동도서의 활용

아동도서를 외국어학습에 활용하는 것은 총체적 언어이론에 그 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다. 총체적 언어이론(whole language theory)은 언어를 개별적인 현상이나 심리적인 양태로 설명하는 대신 사회적 이론으로 설명하려는 사회심리언어학을 기저로 하고 있다. 전체는 부분의 집합 이상의 것이며 언어는 전체로부터 부분으로 배워진다는 것이 총체적 언어이론의 기본명제이다. 즉, 알파벳이나 단어가 아닌 의미 있는 전체로서의 어휘 구문들을 이해함으로써 언어습득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언어학습 초기부터 의미 있는 맥락을 갖는 교재가 언어 학습 대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한다.

아동도서를 외국어교육에 활용할 때 좋은 점은 다음과 같다.

- ① 자연스러운 언어학습환경을 제공하여 준다.
- ② 아동도서의 내용은 대부분 유아들이 자발적으로 흥미를 느끼는 이야기이므로 이야기의 내용을 이해하려는 내적 동기가 강하게 생기게 된다.
- ③ 교재만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삽화가 보완시켜주거나 자신이 이해한 것은 삽화가 강화시켜 준다.
- ④ 아동도서는 반복적으로 읽혀지는 속성이 있으며 예측이 가능한 내용과 구문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학습자가 어휘 및 문장을 쉽게 습득하고 기억할 수 있다.
- ⑤ 아동도서의 맥락은 외국어가 사용되는 나라의 문화를 반영하고 있으므로 언어뿐만 아니라 다문화 교육을 지향하는 유아교육의 목표에도 부합된다.

우리나라 유아들에게 영어동화를 읽어 줄 때는 우선 글의 길이가 짧고, 그림이 이야기를 잘 설명하고 있으며, 반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예측이 가능한 동화를 선정하는 것이 좋다.

유치원 현장에서 유아들이 우리말로 소개되어 잘 알고 있는 내용의 동화를 원어민의 발음으로 녹음된 테이프와 함께 제시하면 원어민 교사가 없어도 할 수 있는 활동이다. 동화책을 우리말로 들려준 후에 같은 내용을 영어로 들려주면 의미를 쉽게 짐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말에 상응하는 영어표현을 비교적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유아들은 같은 책을 여러 번 반복해서 듣는 것을 좋아한다. 그들은 반복해서 듣는 동안 이야기 내용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새롭게 구성할 뿐 아니라 이야기책에 나오는 언어 표현을 익히게 된다. 흔히 교사들은 유아들에게 한 번 읽어준 책은 다음 번에 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다양한 책을 유아들에게 경험시키는 것은 바람직하나 반드시 다른 책을 읽어주

어야 할 필요는 없다. 유아들의 흥미에 따라 동화책을 반복하여 들려줌으로써 유아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야기 내용을 구성하고 그들의 언어 발달을 도울 수 있다. 반복해서 읽어주다 보면 예측이 가능한 부분은 유아들이 종종 따라 읽기를 하는데, 듣기만 하다가 따라 읽음으로써 말하기가 시작되는 것으로 언어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 읽기가 많이 일어나는 동화의 경우, 동화를 들려준 후에 인형극 활동을 해봄으로써 유아의 말하기 능력의 발달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표 2> 동화 들려주기와 유아영어교육

[활동명] The Very Hungry Caterpillar를 읽고

* 이야기 줄거리

알에서 깨어난 애벌레가 음식을 하나씩 찾아서 먹으나 여전히 배가 고프다. 어느 날 여러 가지 맛있는 음식을 한꺼번에 먹고는 배탈이 난다. 다음 날 푸른 나뭇잎을 먹고 나아서는 애벌레가 되고 이어서 나비가 되는 과정이 그려졌다.

* 교육목표

① 영어교육

- 요일의 이름을 안다.(Sunday, Monday--, Saturday)
- 수의 이름을 안다.(one, two, --, five)
- 음식의 이름을 안다.(apple, pear, plum, strawberry, ---)

② 과학교육

- 알에서 애벌레를 거쳐 나비가 되는 과정을 이해한다.

③ 동작교육

- 애벌레, 나비의 움직이는 모습을 표현한다.

* 사전활동

- 「배고픈 애벌레」를 우리말로 읽어준다.

* 본활동 과정

- ① 「The Very Hungry Caterpillar」를 영어로 들려준다.
- ② 애벌레가 왜 배가 아프게 되었는지 이야기 나눈다.
- ③ 애벌레가 먹은 음식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 ④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 ⑤ 우리나라 음식과 외국 음식을 구별해본다.

* 사후/확장 활동

- ① 동작활동
 - 애벌레처럼 기어본다.
 - 나비처럼 날아본다.
- ② 유아들의 관심이 있는 경우 동화를 반복해서 들려준다.
유아들이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의 따라 읽기를 격려한다.

3. 요리활동

요리활동은 ① 언어생활, 탐구생활, 사회생활, 건강생활, 표현생활의 유치원 다섯 가지 교육영역의 내용이 통합되어 일어나는 통합적 교육활동이며, ② 유아들이 흥미를 갖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이며, ③ 유아들의 다양한 감각을 자극하고 이용하는 활동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한 유치원 교육활동의 하나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요리활동은 항상 구체물(음식)을 준비해서 실제로 요리 방법의 시범을 보여주며 제시되는데, 음식과 음식 만드는 과정을 보며(시각), 냄새를 맡으며(후각), 언어적 설명을 들으며(청각), 음식을 만져보며(촉각), 맛을 보며(미각) 활동이다. 즉, 활동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언어적 자료에만 의지하지 않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만한 단서들이 충분하므로 영어교육에 바람직한 활동이 된다.

요리활동은 원어민 교사가 유아들과 함께 음식을 실제로 만들어보는 활동을 하면서 유아들과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원어

민 교사가 없는 경우에는 원어민 교사의 수업을 비디오테이프로 보여준 후에 우리나라 말로 활동을 할 수 있다.

<표 3> 요리활동과 유아영어교육

[활동명] 과일화채 만들기

* 교육목표

- ① 다양한 과일을 이용하여 샐러드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이해한다.
- ② 과일의 이름을 알고 명명할 수 있다.

* 사전활동

- ① 과일 화채 먹어본 경험을 이야기한다.
- ② 먹어본 화채의 재료를 이야기한다.

* 본활동

- ① 과일 화채의 재료를 소개한다.(apple, melon, watermelon,----)
- ② 과일을 씻고 껍질을 벗긴다.
- ③ 적당한 크기로 썬다.
- ④ 큰 그릇에 담고 사이다를 붓는다.

* 사후/확장활동

- ① 소집단활동으로 재료를 주고 과일화채를 만든다.
- ② “What do you like?” “I like ____”라는 chant에 맞추어 돌아가면서 상호작용한다.

4. 기타

영어교육에 관한 internet website를 활용한 On-line 활동과 CD-Rom 등의 off-line 자료들에는 유아의 영어교육을 도와주는 다양한 활동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한 자료들은 (1) 동영상과 청각을 활용하는 multi-media 매체이며,

(2) 제한적이기는 하나 유아와 매체가 상호작용을 할 수 있으며, (3) 게임형식으로 되어 있는 활동들은 유아의 흥미와 동기를 극대화시킨다는 점 때문에 좋은 매체가 될 수 있다.

IV. 결론

21세기에는 영어로 의사소통 할 수 있는 능력이 과거 어느 때보다 더 절실히 요구된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와 학부모들의 과열된 교육열이 조기영어교육의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 초등학생은 물론 유치원생들 까지도 영어에 관련된 사교육을 받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교육비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과목이 영어라고 한다. 이러한 과도한 사교육비가 불러일으키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과 계층간의 위화감 조성이라는 사회적 문제뿐만 아니라 교사의 질이나 교수방법과 같은 교육적인 면에서도 문제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유아영어교육의 실태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유아영어교육의 이론적 타당성과 유아영어교육의 교수법을 검토하였으며 유치원 현장에서 활용이 가능한 영어교육 활동의 교육적 가치와 함께 활동의 예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어교육을 유아기에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문제에 관한 선행연구결과는 ① 유아기에 영어교육을 시작하면 유아기가 지난 후에 시작하는 것에 비해서 교육의 질이 월등히 높아질 것이다. ② 유아기에 시작하면 단순히 영어교육의 양이 많아진다. ③ 유아기에 시작하는 것은 후에 시작하는 것보다 비효율적이다라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이것은 영어교육의 목표나 영어교수방법에 따라서 달라진다. 영어교육의 목표를 발음이나 억양까지 원어민의 수준에 도달하는 것에 둔다면, 영어교육을 유아기에 시작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나, 발음을 제외한 기타 다른 면에 있어서는

반드시 유아기에 시작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학자들의 지배적인 견해이다.

유아기의 교육효과가 특별히 높다는 것은 유아기가 외국어 학습에 있어서 결정적 시기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결정적 시기란 생물학적으로 어떤 기능을 어떤 시기에 습득하지 않으면 그 뒤에는 그 기능이 바라는 온전하고 정상적인 수준으로 발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발음 이외의 면에 있어서는 유아기가 영어학습에 있어서 결정적 시기라는 근거는 불확실하다. 다만 언어학습기재(LAD)가 활발하게 작용하는 유아기에 영어교육을 시작하면 영어를 모국어 습득하는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습득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영어구사능력에 있어서 월등하게 유리할 것이라는 점은 많은 학자들이 견해를 같이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와 같은 EFL 환경에서 영어를 배울 때에도 모국어 학습할 때와 마찬가지로 LAD를 활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체계적으로 연구된 자료가 부족하므로 결론을 내기 위해서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오히려 유아기 영어교육의 효과가 다른 시기보다 낮다고 주장하는 학자도(우남희, 1994) 있는데, 이들은 주로 외국어 학습성취(academic achievement)에 대한 평가를 근거로 판단하고 있다. 학습성취가 아닌 외국어 구사능력에 있어서는 유아가 유리하다는 결과들이 더 많다.

유아기 영어교육의 효율성은 영어교육의 목표뿐만 아니라 영어교수법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유아기가 다른 시기보다 유리한 점은 전술한 바와 같이 모국어 습득과 유사한 방식으로 외국어를 학습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유아기 영어교육이 효과적이라면 유아가 모국어를 습득하는 것과 비슷한 방법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환경(언어 입력)을 제공해주며 사회적 상호작용을 해주어야 한다. 언어 규칙의 이해나 적용을 강조하는 방법의 학습은 유아기에는 적당하지 않다.

두 번째로, 유아기 영어교육을 시키는 것이 모국어 발달을 방해하는가에 관한 연구결과들을 요약해 보면, 초기 단계에서의 간섭 현상을 인정하나, 두 번째 언어의 학습이 모국어 발달에 방해가 되지 않고 오히려

언어의 일반적인 규칙이나 현상에 민감하게 만들어서 모국어 학습을 도와주며, 분석적 추론, 개념형성, 메타 언어적 지식과 같은 일반적인 지능의 측면에도 도움을 준다는 주장이 점차로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연구들도 대부분 이중언어를 사용하는 환경에서 이루어졌으나, 대체로 우리나라와 같은 EFL 환경에서는 ESL 환경에서보다 외국어 학습이 모국어 발달을 방해하는 간섭현상이 적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유아들에게 사용될 수 있는 외국어교수법으로 직접교수법, 청화식 교수법, 의사소통적 교수법, 총체적 언어접근법, 자연적 접근법, 전신반응 교수법, 몰입 프로그램 등을 소개하였다. 유아기가 다른 시기보다 외국어 교육을 하기에 유리하다고 하는 것은 유아기에는 모국어를 습득하는 것과 비슷한 방법으로 외국어를 학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지적인 면에서는 유아기보다 청소년기나 성인기가 훨씬 성숙하다. 따라서 규칙을 강조하는 식으로 교육을 하는 것은 유아기에는 적합하지 못하다.

따라서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유아들에게 이해 가능한 언어 입력(linguistic input)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많이 제공하는 것이 유아영어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본 연구자는 교사나 교재 등의 여건이 허용하는 한 하루 일과의 몇 가지 활동만이라도 외국어로 수업을 하는 부분몰입 프로그램을 제안하고자 한다. 자질 있는 외국인 교사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원어민의 발음이 녹음된 audio 및 video tape, CD-Rom 등의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한다. 영어로 수업을 하는 활동은 본 연구에서 제시한 활동들처럼 유아들이 수업내용을 추측할 수 있는 언어 이외의 단서를 많이 제공하는 활동이 바람직하다. 활동 초기에는 유아들에게 말하기를 요구하지 않으면서 청해력을 키우는데 주력하며, 점차 한 단어 응답을 요구하는 질문을 하거나 노래, 챌트(chant)로써 말하기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말하기를 지도할 때는 유아들의 잘못된 표현이라도 수정하지 말고 말하도록 격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영어교육을 유아들이 재미있는 놀이로 여기고 즐겁게 참여함으로써 영어

에 대한 흥미를 느끼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 영어교육을 또 하나의 학습부담으로 느낀다면 일찍부터 영어에 대한 흥미를 떨어뜨리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자는 유치원에서의 외국어교육이 학부모들의 지나친 교육열과 교사 및 언어환경을 비롯한 교육여건의 미비에 따른 문제점을 갖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 몇 가지 사항을 제안하는 바이다.

(1) 유치원에서의 외국어교육은 언어자체만의 숙달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외국어를 포함한 외국문화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인 태도를 기르므로 장차 국제사회에서의 적응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도록 한다.

(2) 현재 유치원 현장에 적용되고 있는 프로그램의 대부분은 영어교육전문가들에 의해서 개발된 것이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유아들의 발달특성에 맞으며 유치원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검증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3) 유치원에서 외국어교육을 위한 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단기적으로는 유치원 교사의 연수과정을 갖도록 하며 장기적으로는 유치원 교사양성기관에서 외국어교육에 관한 과정을 포함시키도록 한다. 또한 학부모를 포함한 지역사회의 인사를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될 수 있다.

(4) 우리나라 유아들에게 자연스러운 영어 입력을 제공하기 위하여 유아교육 TV 프로그램을 영어로 방영할 것을 제안한다.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하여도 좋고 외국의 'sesame street'과 같은 프로그램을 방영하여도 좋다. 유아들의 흥미를 끄는 좋은 교육 프로그램을 시청함으로써 그들 수준에 맞는 자연스러운 영어를 접하게 되며 영어에 대한 청해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좋은 TV 프로그램의 제작 혹은 구입비용이 영어교육에 대한 사교육비를 경감시킬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은아(1996). 유아의 조기교육에 대한 실태와 인식조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진영, 김현희, 김영실(2000). 우리나라 유치원 영어교육의 현황. 제14회 한국어린이육영회 유아교육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72-117.
- 김현희(1988). Sociolinguistic and syntactic aspects of code-switching in Korean-English bilingual children: A Naturalistic, longitudinal study.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Illinois.
- 남윤주(1997). 유치원에서의 영어지도에 관한 연구. 한국외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마송희(1997). 유치원 영어교육의 타당성 및 교수방법에 관한 고찰. 유아교육학논집. 1권 2호, 175-92.
- 박형기, 배두분, 전도영, 정길정(1991). 국민학교 영어교육 개선을 위한 연구. 김충배(편), 국민학교 초기 영어교육론. 한국문화사, 143-96.
- 신경구, 선규수, 박주경(1996). 효과적인 초등학교 영어수업모형개발. 영어교육 51(4), 203-36.
- 안수웅(1994). EFL 환경에서의 영어조기교육. 김충배 편(1994). 초등학교 초기영어교육론. 한국영어학회 영어교육총서1, 215-44. 한국문화사.
- 우남희, 이종희(1994). 한국의 초기 영어교육 실태조사. 한국아동학회 1994년도 춘계학술 강연 발표논문.
- 이옥로(1982). LAD와 초기영어교육. 김충배(편) 국민학교 초기 영어교육론. 한국영어교육학회 영어교육총서, 13-26.
- 이옥로(1983). 초기영어교육의 이론과 실제-취학전 아동을 중심으로. 영

어교육 26호. 한국영어교육학회.

- 이정민(2000). 유아언어발달과 영어교육. 제14회 한국어린이육영회 유아교육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13.
- 이종혁(1990). 노래를 통한 영어 듣기 지도의 효과. 영어교육 39호. 한국영어교육학회.
- 이흥수(1991). 조기영어교육론의 제문제. 정동빈(편) 영어교육론. 언어와 응용언어학 II. 한신문화사.
- 전동열(1983). 유치원에서의 조기 영어학습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정명호(1989). 조기영어교육론. 한신문화사.
- 최진황(1986). 영어교수법 이론과 적용. 민족문화문고간행회.
- 최홍규(2000). 유아영어교육의 문제와 해결방향. 제14회 한국어린이육영회 유아교육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58-69.
- 한유미, 이진화(1997). 조기영어교육의 실태와 어머니들의 인식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고향논집. 20, 325-42.
- Chomsky, N.(1965), *Aspects of the theory of syntax*. Cambridge: M.I.T. Press.
- Fillmore L.W.(1991). When learning a second language means losing the first.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6, 323-46.
- Transnational College of LEX(1998). *Who is Fourier? A mathematical adventure* translated by Gleason, A. Language Research Foundation.
- Graham, C.(1979). *Jazz chants for children*. Oxford University Press.
- Hancock, C.(1977). Second language study and intellectual development. *Foreign language Annals*, 10.
- Krashen, S.(1978). The monitor model for second language acquisition. In

R.Grigras(ed.) *Second language aquisition and foreign language teaching*, Washinton: Center for applied linguistics. 이흥수(1991) 재인용.

Krashen, S.D.(1991). *Bilingual education: A focus on current research*. Washington, D.C.: National Clearinghouse for Bilingual Education.

Lado, R.(1976). Early Reading as Language Development. In: Robert Lado and theodore Andersson, eds., *Georgetown University Papers on Languages and Linguistics*, No. 13: Early Reading. Washington, D.C.: georgetown University Press. 이옥로(1983) 재인용.

Oliva, F.(1969). *The teaching of foreign language*. Englewood Cliffs: Printice Hall. 이흥수(1991) 재인용.

Puckett, M.B. & Black, J.K.(2001). *The Young Child Development from pre-birth through age eight*. Merrill Prentice Hall.

Ricciardelli, L.A.(1993). Creativity and bilingualism. *Journal of Creative Behavior*, 26(4), 242-54.

Rodrigue, J.L. Diaz R.M., Duran, D., Espinosa, L.(1995). The impact of bilingual preschool education on the language development of Spanish-speaking children.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0, 475-90.

Soderbergh, R.(1977). *Readings in Early Childhood*. Washington, D.C.: Georgetown University Press.